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온 중고등부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곧 수련회 기간도 다가오고 우리 8명의 친구들은 몽골단기 선교까지 있네요. 기대가 참 많이 될 것 같아요. 수련회도 중요하고 몽골도 중요하지만, 주일에 항상 예배 드리는거 참 중요해요. 물론 예배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라야 하나님께서 큰일에도 사용하신답니다. 지난 주에 뭐 배웠죠? 판단하지 말라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도 죄인이요, 판단은 정죄함이에요, 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판단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요? 영어네요. 우리 친구들은 톡톡해서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네요. 그러면 'Be Brave'가 무슨 뜻인가요? 한국식 학원에선 동사가 앞에 왔으니까 명령문이네, Be면 ~이다, ~되다라는 뜻이니까, 오 용감해지라?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용기와 끈기, 요즘 말로 깡이 필요하죠. 오늘은 말씀이 짧아요. 사사기 3장 3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먼저 삼갈이란 사람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나 현대 학문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였다고 인정해요. 근데요, 이 삼갈이란 사람이 추정하기론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름 뜻을 '술 따르는 사람'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어서 그렇기도 해요.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12사사들이 나와요. 물론 후반부로 갈수록 사사들의 청렴도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도 형편 없어지는데, 에훗 후의 사사인 삼갈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고고학적인 증거나 외부 문서를 봐도, 심지어는 성경에서도 삼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알 수가 없어요. 사사기 3장 31절에 단지 그는 블레셋 사람 육백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웃기지 않나요? 어찌보면 영웅인데 그에 대한 설명도 없고.. 삼갈이란 사람 섭섭할거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대단하지 않나요? 삼갈이 살았던 시기는 정말 '우리민족끼리'의 사상이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사람이에요. 삼갈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갈을 가리키면서 “ㅉㅉ, 저저저저 이방인이야! 구원 못 받는 놈이야!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데요.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팡이보단 살짝 길고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블레셋을 크게 치기 전까지 정말 여호와의 법궤까지 가져갈 정도로 강성했던 민족이에요.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사울왕도 블레셋 골리앗 때문에 큰 고생했어요. 근데 그런 블레셋 군대를 단지 나무쫓가리로 만든 막대기로 무찔렀데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것도 600명이래요. 여러분 이게 말만 6백명이지만, 구약학자들은 6백명이 단지 상징적인 숫자고, 오히려 더 많이 무찔렀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랑 뭘 상관이 있을까요? “아~ 전도사님, 성경은 옛날 소설 아녀~?, 그게 나랑 뭘 상관이여~ 뭐... 삼갈이 깡이 좋았나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삼갈은 이방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이란 정말 노예보다 더 못한 취급을 했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삼갈을 사용하셨어요. 그것도 소 모는 막대기로요. 소 모는 막대기로 싸웠다는 건 삼갈이 군인이 아니었고, 지도자의 역할도 아니었다는거예요. 농사꾼이나 한낱 정말 노동자의 직급에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이방인, 별 볼일 없는 이방인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앞으로 다른

사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겁 많던 기드온을 사용하셨고요, 여자였던, 지난 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은 여자면 사람 취급을 안했다고요. 여자였던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는데도 사용했고, 당시에는 장애로 여겨졌던 왼손잡이 에훗마저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공부 못하는거? 성격 드러운거? 하나님 앞에선 다 헛것이에요. 누구나 약점은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 등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이를 믿으세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용기 달라고 기도하세요. 삼갈도 처음엔 어이가 없었겠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하나님, 나 이방인이예요. 이스라엘 애들이 나 인간 취급도 안해줘요. 그리고 전 군인도 아니거니와 한낱 농부예요, 근데 저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삼갈은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용하시길 원하는 길로 걸어갔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마인드를 심어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의대가고 싶어요? 변호사 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 남자애한테 고백해보고 싶어요? 그런 고민이 있다면 걱정을 버리고 용기를 내서 질러보세요. 만약 그러한 고민이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고민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다면 분명히 이뤄주실 거예요,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시겠지..’, 그리고 기도만하지 말고요. 실천하세요.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는게 있어요. “기도만 하면 뭐 잘 되겠지” 그거 아니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산에서 기도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직접 죽으심으로, 행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어요. 이처럼 행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 얻은 용기를 버리는 거예요. 행위로 노력하면서 용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